

오페라와 뮤지컬

1. 발성법과 음색·음역의 차이점

뮤지컬의 경우, 장르에 따라 음색과 음역이 달라지고 캐릭터의 성격과 극 중 상황에 따라서도 음역과 음색이 달라진다. 하지만 오페라의 경우 흥성을 자제한 두성, 즉 벨칸토 발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뮤지컬과는 달리 발성이 정해져 있다.

2. 소리 전달의 차이점

뮤지컬은 1940년대부터 마이크를 통해 자신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뮤지컬 배우는 공명을 위한 발성이 필요 없게 되어 발성 자체보다 가사의 전달력에 집중한다.

3. MR과 라이브의 차이점

뮤지컬은 음향 기술이 발달된 시기에 등장하여 사전에 녹음된 MR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오페라의 경우 아무리 예외라 하더라도 노래와 반주가 MR로 대체되는 경우는 드물다.

4. 언어의 차이점

오페라의 경우 클래식 음악 어법을 지속하고 있다. 스크린을 통한 번역으로 대사를 전달한다. 뮤지컬의 경우 오페라와는 달리 감정의 표현이 유연하여 지역 언어로 전달 가능하다.

5. 안무의 기능과 목적의 차이점

오페라의 경우 안무가 극의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뮤지컬의 경우 오페라와는 달리 극의 전달에 있어서 무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 뮤지컬의 3대 구성요소(노래, 드라마, 춤)인 춤으로, 주제 묘사, 정보 제공·과장·확대 등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6. 무용 종류의 차이점

뮤지컬의 경우 무도회 춤과 스페인 춤, 디스코, 재즈 아크로바틱 등 극중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스타일의 춤을 사용한다. 오페라의 경우 주로 발레가 사용된다. 18세기에 경우 발레가 없는 오페라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발레가 오페라의 중점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했다.

● 뮤지컬의 장르별 특징, 대표 작품

1. 북 쇼(북 뮤지컬): <왕과 나>, <사운드 오브 뮤직>, <맨 오브 라 만차>, <아가씨와 건달들>, <지붕 위의 바이올린>등

2. 주크박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노란 잠수함>, <와이키키 브라더스>, <젊음의 행진>, <광화문 연가>, <스트릿 라이프>등
3. 무비컬: <헤어 스프레이>, <이스트윅의 마녀들>, <더티 댄싱>, <스팸어랏>, <빌리 엘리어트>등
4. 댄스 뮤지컬: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사랑하면 춤을 춰라>,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등
5. 드라마컬: <대장금>
6. 노블컬: <레 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오페라의 유령>등
7. 소극장 뮤지컬: <록키 호러 쇼>, <리틀 슝 오브 호러스>, <헤드윅>, <쓰릴미>,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김종욱 찾기>, <형제는 용감했다>등 창작 뮤지컬
8. 콘셉트 뮤지컬(바그너 악극 개념)

콘셉트 뮤지컬이란 상징, 은유, 비유 등이 극적인 구조나 이야기보다 더 중심이 되는 실험적 성격의 뮤지컬.<컴퍼니>, <리틀 나이트 뮤직>, <암살자들>, <캣츠> 등

9. 프랑스 뮤지컬 특징

- 프랑스 혹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뮤지컬들에 대한 통칭.
- 프랑스와 벨기에, 스위스 일부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일부
- 브로드웨이 작품과 웨스트엔드 작품과 달리 지역성과 작품성 강조.
- 프랑스 뮤지컬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기 장르 입성.
- 1998년 제작 <노트르담 드 파리>가 프랑스 내부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프랑스 내부에서도 뮤지컬에 대한 지지와 인기가 늘어남.
- 영미권 뮤지컬과 달리 프랑스 뮤지컬은 노래를 부르는 배우와 춤을 추는 무용수가 분리됨.
- 뮤지컬의 반주에 라이브 음악이 아닌 녹음된 음악을 사용함
- 보통 무대에 올리기 전에 음악을 먼저 공개하여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
- 프랑스 뮤지컬은 다른 장르에 비해 구체적인 스토리보다 화려한 음악으로 관객과 승부

- 프랑스 3대 뮤지컬로 꼽히는 <레 디스>, <로미오와 줄리엣>, <노트르담 드 파리>이외에도 <어린왕자>, <돈 주앙>, <태양왕>등이 있다.

프랑스 뮤지컬의 모태

- 오페라 코미크는 18세기 후반 프랑스에 있었던 오페라 양식
- 레치타티보 대신에 대사를 사용하며 친밀하며 규모가 작은 13세기 후반 북프랑스의 음유시인 아당 드 라 알의 목가극, 17세기 이탈리아의 오페라 부파의 자극을 받고 일어난 오페라 부프, 18세기 초반에 생겨난 보드빌 등.

프랑스 3대 뮤지컬

1. 레 디스 (십계)

<레 디스>는 구약성서를 바탕으로 이집트의 모세와 람세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집트에서 고통 받던 히브리인들이 구원자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과정이 주 배경이다. 여기에 네페르타리 공주와 모세간의 로맨스, 람세스의 로맨스가 덧붙여져 있다.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사랑, 우애, 자유, 관용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난 2002는 프랑스에서 초연된 작품이고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뮤지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만 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고 CD를 비롯한 각종 영상 기록물들이 420만개 판매되었다. 일본 공연에서는 투어 24회동안 13만명이 관람하였으며 OST는 160만장이 판매되었다. 수록곡 'L'envie d'aimer'는 2002년 프랑스의 노래로 선정되었다.

2. 로미오와 줄리엣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난 2001년 프랑스 파리 팔레 드 콩그레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난 16세기 후반 셰익스피어가 발표한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이 인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연에 앞서 공개된 싱글곡 'Aimer'와 'Rois du monde'가 프랑스 음악차트 1위에 오르며 200만장의 판매고를 올려 관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은 초연 이후 4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하였다. 가수와 무용수의 경계가 명확한 기존 프랑스 뮤지컬과 달리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직접 춤추고 무용수들이 코러스에 참여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가수와 무용수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 새롭게 리뉴얼된 버전으로 소개되었으며, 2009년에 한국어 공연이 이루어졌다.

3.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 뮤지컬의 역사에 있어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사회 내부에서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그다지 활성화되진 않았었다. 하지만 이 작품이 1998년 초연 후 성황리에 공연되자 뮤지컬에 관심을 보였던 여러 작곡가들이 프랑스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키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뤽 플라몽동의 가사에 리샤르 코시앙트가 곡을 붙여 만들어졌다. 프랑스에서 대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그 이후 유럽과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13개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대사가 없이 노래로만 두 시간 반 동안 극이 진행되며 대사가 없는 대신 안무가 극의 전달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중앙일보에서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05년 최고의 뮤지컬로 선정된 바 있다. 뮤지컬 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2006년 앙코르 공연이 이루어졌다.